

‘제주 패스’… 경선 후보들 방문 계획 없어

더불어민주당 제주 경선, 27일 일산서 통합 진행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돼
국민의힘, 지역 순회 포기… TV토론으로 대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에서 당내 경선을 치르는 예비후보들의 제주 방문이 이뤄지지 않아 대선에서 제주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치르고, 국민의힘은 지역 순회 경선 없이 TV토론회로 대체하면서 각 당은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된 뒤에야 후보의 제주 일정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당내 경선은 지난 19일 충청권(청주체육관), 20일 영남권(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이어 오는 26일 호남권(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되고, 마지막 27일에 수도권·강원·제주 권역 경선이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보통 권역별 경선은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개최되지만, 이번에는 수도권과 강원·제주를 둘러 경기도에서 경선을 치르면서 제주에서는 후보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

는다. 제주지역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만에 치러야 하는 조기 대선의 특수성 때문이다.

경선 행사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들의 제주 방문 일정도 경선 기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주고 있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경우 지난 4월 3일 제주 4·3희생자 국가추념식에 각각 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경선이 끝나고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의 제주 방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역시 당내 경선이 마무

리되는 오는 5월 3일까지는 후보들의 제주 방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는 “대선 일정이 촉박해 경선이 끝날 때까지 예비후보들의 제주 방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순회경선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번 당내 경선은 당초 계획했던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순회 전당대회를 포기하고 지역별 TV토론회로 대체했다. 국민의힘은 21일부터 이를 동안 후보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halla.com

당 안팎에서는 이 후보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김경수·김동연 후보가 깨고 주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1·2차 순회 경선 결과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89.56%로 사실상 압도적 승리를 잡았고 김동연 후보는 5.27%, 김경수 후보는 5.17%에 그치고 있다.

호남은 전통적으로 ‘이번에 뭘 사람을 밀어주는’ 투표 양상을 보여온 곳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이 후보의 지지세가 호남에서도 이어지는 것은 물론, 득표율이 영남권 득표율(91.10%)을 넘어서 최고치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그러나 정반대로 독주에 대한 ‘회초리’ 차원으로 견제 성격의 전략적 투표가 이뤄진 곳이 호남이기도 하다. 가깝게는 지난 4·2 재·보궐 선거 당시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기도 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구를 ‘싹쓸이’ 하다시피 한 전력도 있다.

독주하는 이 후보에 대한 견제성으로 호남에서 비례계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약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고개를 듈다.

연합뉴스

24일쯤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고, 조만간 호남 맞춤형 정책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후보는 세 후보 중 가장 먼저 이날 호남행에 올라 전북 전주에서 당원 간담회를 했고, 오후 광주 양동시장을 찾은 뒤 광주·전남 당원들과 만난다.

김동연 후보는 전날 호남권 동서 횡단 교통망 구축 등 지역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23일부터 2박 3일 동안 호남 지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주 후반부인 오는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전씨를 지난 20일 다시 소환 조사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전씨가 받은 금품이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전씨가 통일교 세계본부 장이었던 윤모씨에게 고문료와 기도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

와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보고 전씨에게 돈을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가 꾸려졌던 2021년 12월 22일 전씨와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자 발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8명의 경쟁 구도에서 4명이 탈락하면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가나다순) 후보 4파전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2차 경선에 진출 할 후보 4인을 확정했다. 경선에 뛰어든 8인의 후보 중 나경원,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후보는 컷오프 됐다.

이날 경선 결과를 보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입장인 안철수·한동훈 후보와 반대 입장인 김문수·홍준표 후보 2대 2 구도다.

이번 2차 경선 진출자를 선정하는 1차 경선 여론조사는 ‘100% 국

건진법사 수사 확대…尹-통일교 주선 조준

2022년 지방선거 개입 의혹도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향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전씨를 지난 20일 다시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독주에 대한 ‘회초리’ 차원으로 견제 성격의 전략적 투표가 이뤄진 곳이 호남이기도 하다. 가깝게는 지난 4·2 재·보궐 선거 당시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기도 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구를 ‘싹쓸이’ 하다시피 한 전력도 있다.

독주하는 이 후보에 대한 견제성으로 호남에서 비례계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약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고개를 듈다.

연합뉴스

윤씨가 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메시지에는 3000만원의 현금다발 사진이 있었다.

돈을 건넸던 윤씨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2022년 3월 22일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1시간간가량 독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가 국민의힘의 서울권 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에 개입한 의심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통일교 세계본부 장이었던 윤모씨에게 고문료와 기도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보고 전씨에게 돈을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직자는 진행 중이던 구청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고문(전씨 지칭)님의 지휘 아래 A씨와 B씨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문자로 알렸다.

연합뉴스

경축

(주)제주막걸리 - 국가자정 HACCP(하썹) 인증



**정정 학산암반수로 만든
생유산균이 살아 있는 제주 막걸리**

HACCP(하썹) 인증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제주막걸리 대표이사 고동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2-3
사무실 : (064)713-4001, FAX. (064)713-5001

한라일보 창간 36주년을 축하합니다



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한라일보 창간 36주년을 축하합니다

한라일보 창간 3